

고려 철불서 백남준까지 鐵 역사 망라

포스코미술관 개관 20주년 '철이 철철' 전

고려철불에서 백남준의 작품까지 철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포스코미술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철이 철철' 전을 7월 7일까지 연다.

전시 제목인 '철이철철'은 포스코가 소장하고 있는 백남준 작품 '철이철철- TV 깔대기, TV나무'라는 제목에서 따왔다. "포항제철은 철 만드는 회사이니 철(鐵)이 철철넘쳐나라"며 포스코의 무궁발전을 기원한 작가의 유타어린 메시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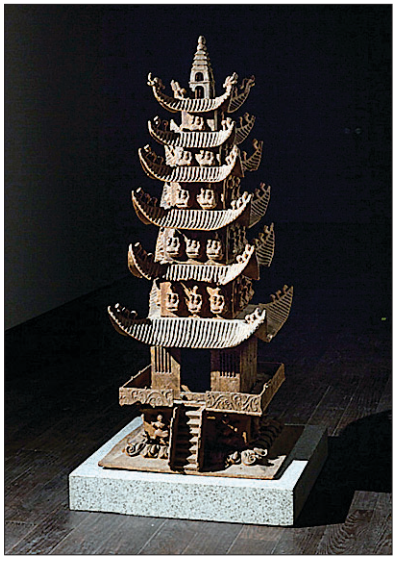
특히 이번 전시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고려철불, 사천왕상, 철탑 등의 불교문화재는 물론 추억의 만화 영화 속 영웅인 로보트 태권브이까지 '철' 혹은 '금속'을 사용한 작품을 한데 모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려 철조 유물부터 현대미술,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철의 역사를 한 자리에서 조망해볼 수 있는 전시다.

특히, 전시 도입부는 통일신라 사천왕상 4점과 고려 철조불상 1점, 백남준의 '붓다킹' 등이 소개된다. '철제여래좌상'은 고려시대 초기 철불(12세기)로 같은 시기 장신계열의 대표적 불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고려 철불의 형식적 특징과 그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불자 작가 백남준(1932~2006)의 '붓다킹'은 서양의 왕과 동양의 부처님이 교차하고 살롱 무어맨의 영상이 상영되는 작품



포스코갤러리는 개관 20주년을 맞아 '철이 철철' 전을 개최한다. 고려 철제여래좌상(좌)과 고려시대의 철조탑



포스코갤러리는 개관 20주년을 맞아 '철이 철철' 전을 개최한다. 고려 철제여래좌상(좌)과 고려시대의 철조탑

철조유물 현대미술 등 한데 모아 7월 7일까지 포스코 갤러리서

으로 현실과 추상적 세계가 교차되면서 유희적이지만, 관념적인 심오함을 담고 있다.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이자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실험적이고 창의적으로 작업했던 예술가 백남준의 작품을 철의 역사 속에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밖에도 쌍사자철등(통일신라), 철조탑 2점(고려), 철조십이지신상 8점(고려), 철조탑(고려) 등도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특히, 철조탑은 사각형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방형다층누각(方形多層樓閣) 형태로 고려시대에 특히 많이 제작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다. 박승모의 '연기(緣起)는 철망'을 여러 겹 겹쳐서 형태와 이미지를 표현한다. 얇은 철망들이 한 겹 두 겹 겹치고 겹쳐서 연필 소묘처럼 만들어진 인물의 환들은 실재와 허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의 찰나를 더욱 섬세하고 정교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철이나 금속을 주재료로 사용한 대표적인 현대 미술작가들의 회화 조각인테리어 등을 '인간' '자연' '기술' 세 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참여 작가는 송영수, 한영옥, 김경환, 정용진 등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무산 허회태 작가, 동국대에 작품 기증 '화제'

'108번뇌불' '억만 부처 佛' 등 전달



허회태 작가(왼쪽)가 기증한 '억만 부처 佛'을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오른쪽)이 감사하고 있다.

날 전달식에는 허회태 선생을 비롯해 이사장 일면 스님, 법인사무처장 종민 스님, 이관제 대외협력처장, 김형중 동대부총 교감 등이 참석했다.

동국대가 기부 받은 '108번뇌불'과 '억만 부처 佛'은 작품 크기가 8m x 2m에 달하는 대작이다. '108번뇌불'은 108개의 '佛' 자가 하나의 작품을 이루고 있으며, '억만 부처 佛'은 '佛' 자를 수천수만 번 덧칠하여 거대한 '佛' 자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허회태 선생은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을 담았다. 특히 '억만 부처 佛'의 경우 수행하는 마음으로 작업에 매진, 장장 6개월에 걸쳐 완성했다"며 "이사장 스님과 총장 스님의 취임을 계기로 종립 동국대가 도약 발전하고 한국 불교 융성에 크게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품을 전달하기로 했다"며 기부를 결

심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멀리서 보았을 때는 일필휘지(一筆揮之)한 듯 웅장한 느낌이 들었으나, 가까이서 보니 세필로 여러 차례 덧칠한 엄청난 정성과 공력이 느껴져 다시 한 번 감동이 일었다"며 "귀한 작품을 종립 대학에 회사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말씀하신대로 동국발전의 원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57년 전남 순천에서 출생한 허회태 선생은 1975년 광주 금호고등학교 학생신분으로 초대개인전을 열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95년 대한민국서예대전에서 작품작 '묵간재'로 대상을 수상하며 서예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2005년에는 감성을 의미하는 'Emotion'과 그림을 뜻하는 'Graphy'의 합성어인 이모그래피(Emograpy)를 창시,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스웨덴, 미국, 독일 등에서도 독자적인 현대미술가로 호평을 받고 있다.

정혜숙 기자

내재한 원력 진실히 전달... "현장서 가슴 뜨거워져"

일운 스님의 북 콘서트를 보고

지난 6월 6일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일운 스님 저 <산사에 홀로 앉아> 북 콘서트가 열렸다.

30년 이상 글 쓰는 일을 본업으로 하고 있지만 북 콘서트에 가 본 건 처음이었다. 흔히 출판기념회, 하연 지인들이 참석해 책을 사주고 몇 사람이 돌아가며 축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북 콘서트는 말 그대로 책과 공연을 합성한 문화 행사였다. 불교적인 색깔을 어떻게 입히느냐에 따라 북 콘서트도 훌륭한 불교문화행사도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충분히 느껴졌다.

정목 스님의 세련된 진행으로 장내는 화기에애한 열기로 가득했고 청중들은 웃음을 머금은 얼굴로 무대 위에 오른 일운 스님과 정목 스님을 바라보았다. 정목 스님이 질문하고 일운 스님이 답하는 형식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나는 일운 스님의 답을 들으면서 차츰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일운 스님 안에 내재한 원력이 진실하고 간절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찾고 있는 스님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것은 진실하면서도 유능한 스님, 구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의식이 깨어 있는 스님, 불법의 정수를 꿰뚫어 아는 스님, 이런 스님상일 것이다. 나는 이쯤에서 스님도 불자도 불교도 법(부처님 가르침) 앞에서 좀 더 진실하고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스님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본다. 내가 일운 스님 북 콘서트에 가서 가슴이 뜨거워진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일운(一耘) 스님은 봉녕사 학장이셨던 묘음 스님 사자다. 일운이라는 법명도 묘음 스님이 내리신 것이다. 운(耘)자는 김매다, 없애다, 제거하다, 라는 뜻이니 속기를 다 없애고 오롯이 불성에 안주한 스님이 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일운 스님은 과거생에도 스님이셨던 것 같다. 17살 어린 나이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일체 만상은 마음의 작용이고, 마음공부를 하려면 절에 가서 스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고국을 입은 채 청도문사 강원을 찾았다고 하니 말이다. 그 당시 운문사 강원에는 묘음 스님이 강주로 계셨는데, 묘음 스님과 인연은 그렇게 해서 맺어졌다. 그로부터 18년의 세월이 흐른 1987년 일운 스님은 대만으로 유학을 가 중화민국 중화불학연구소 불교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고, 유학기간 4년 만민



일운 스님은 6월 6일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북콘서트를 열었다. 관중들은 콘서트를 통해 진실하고 간절한 스님의 큰 원력을 느낄 수 있었다.

정목 스님 질문, 일운 스님 답 형식 "시대 필요한 스님상 조명" 인상적

1990년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했다. 그리고 2년 후인 1992년에 은사스님인 묘음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다. 비구니 계의 강사스님이 된 것이다.

일운 스님이 올린 불영사에 첫 발을 디딘 것은 대만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그 다음 해였다. 문중어른 스님들이 대만까지 찾아와 불영사를 맡아달라고 당부했기 때문이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일운 스님은 그 당시 비구니스님으로는 최고의 엘리트그룹에 속했다. 그리고 은사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으니 강사스님으로 안정된 생활이 보장돼 있었다. 하지만 스님은 안정된 생활을 택하지 않고 경상북도 오지인 울진 불영사로 내려왔다. 일운 스님 인생 2막이 시작된 것이다.

울진 불영사는 진덕여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산 위에 있는 부처님 모습을 한 바위 그림자가 연못에 비친다고 해서 절 이름이 불영사(佛影寺)다. 일운 스님이 처음 불영사에 올 때만 해도 불영사는 몰락한 양반집 같은 모습으로, 고찰이라는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었다.

30대 후반의 비구니스님이 몸담고 있기에 너무도 피폐해 있었다. 그러나 스님은 피폐한 도량에 두 발을 굳건히 딛고 서서 불영사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아 부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세월이 흘러가자 불영사 도량은 천축선원, 무위당, 황화실, 청운당, 청풍당, 반야당, 설선당... 같은 이름의 당우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스님이 불영사에 머무는 25년이 된 지금 불영사 도

량에는 25채의 당우가 새로 들어서 그 위용을 떨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축선원에는 영동제일의 비구니선원이 개설돼 절제이면 전국에 흩어져 있던 비구니스님들이 모여 들어 안거에 들어간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과거와 미래의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쓰는 일운 스님 특유의 생활철학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일운 스님은 해마다 불영사에서 사찰 음식 축제를 연다. 이 기간에 참석하는 사람은 약 7천명에서 8천명 정도. 울진군 내에서 가장 큰 문화행사도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2011년 6월부터 만일염결사사를 시작해 2038년 10월에 회향의 목표로 하고 있다. 비구니 스님이 만일 결사를 추진하다니! 스님 가슴속에서 유유히 흐르는 원력의 강물을 보는 것 같아 숙연해진다.

지금 현재 만일 결사에 동참한 회원은 약 3천 명, 스님은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통해 회원들에게 마음의 편지를 보낸다. 그리고 회원들이 보내 온 보시금으로 제 3국 어린이들을 돕고 있다. 아침마다 법을 전하고 대신 음식을 공양 받는 탁발순례를 실천해 옮기고 계신 셈이다. 원력은 아름답다. 원력을 실천하는 삶을 지켜보는 것은 더욱 아름답다. 진실하면서도 유능한 스님, 구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의식이 깨어 있는 스님, 삶의 중심에 원력이 굳건히 자리한 스님, 불법의 정수를 꿰뚫어 아는 스님, 이런 덕목을 갖추고 계실 것 같은 일운 스님과의 만남은 나를 행복하게 했다.

남지심 작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통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주**

“전통운반차 1회 충전으로 3~4일 운전 가능”

“사람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3. 저렴한 유지비!
4. 안전한 연동 설치 작업대!
5. 소음 걱정 끝~!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당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경단골로 82-6(경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안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만명합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말소일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찰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8권

신간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禪門拈頌)! 전 30권 중 제28권 출간. 양산, 명초, 법안 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낱알이 살하였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